

기억속 '옛 도청 원형' 사진으로 만난다



▲2010년 찍은 옛 전남도청 상황실.

◀김향득 사진작가가 2007년 대선 직후 촬영한 옛 전남도청 모습.

김향득 사진전 '어게인 518-0416'... 27일까지 아하갤러리

5·18때 고교생 시민군 활동으로 옥고 "도청 사진 작업하면서 오월 아픔 치유" 세월호·촛불집회...시기별 30여점 전시



5·18, 6월 항쟁, 세월호 추모행사, 촛불 집회까지. 옛 전남도청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광주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김향득(54) 사진작가에게 옛 도청은 더욱 특별하다. 1980년 광주대동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그는 도청과 옛 YWCA 건물을 오가며 운상원 열사 등과 함께했다. 자신은 투사회보 제작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옥고를 지냈다. 약 10년 전부터 카메라에 도청 사진을 담아온 김 작가가 '어게인 518-0416'을 주제로 아하갤러리(동구 금남로 37가 15-1)에서 27일까지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7년 도청부터 최근 촛불집회 현장까지 30여점을 선보인다. 그동안 5·18, 세월호를 주제로 매년 개인전을 열어온 김 작가가 처음으로 도청 내외부 모습만으로 꾸민 전시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온전한 도청 건물을 만날 수 있다. 김 작가가 도청 사진을 찍기 시작한 배경에는 5·18 아픔이 자리잡고 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20~30대 때 '빨갱이', '간첩' 소리를 들으며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다. 최근 아하갤러리에서 만난 그는 "각종 문화유산과 자연 사진을 찍으며 오월에 대한 울분을 삭였다"며 "옛 도청 공사 소식

을 듣고 '이 순간을 놓치면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도청 사진 작업은 내 스스로 5월 아픔을 치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희생자들에게 진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기분이에요. 처음에는 '도청 사진을 찍어서 뭐하냐'는 판단도 들었지만 10년이 지나니까 찍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대표작은 2007년 12월30일 전일빌딩 옥상에서 도청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다. 그해 12월19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 날이다. 광주시민들이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생각한 김 작가는 눈이 소복이 쌓인 도청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셔터를 눌렀다. "제 사진은 주로 겨울에 찍은 것들이 많아요. 아직 우리나라에 봄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내년 사진전에는 봄 풍경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0년 공사 중간 어렵사리 도청 내부에 들어가 찍은 사진도 있다. 윤 열사 등을 만났던 상황실, 복도 등이 더이상 해

손되기 전에 찍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오는 31일까지 '메이홀'에서 '검은 하늘 그날'을 주제로 5·18 전시를 여는 재독작가 정영창씨는 이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검은 하늘 그날' 시리즈를 작업하기도 했다. 또 2017년 1월9일 도청을 배경으로 5·18민주광장에서 찍은 세월호 참사 1000일 순례 집회, 2010년 5·18 30주년 햇불행진 등 시기별 도청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에는 김화순 작가가 사진을 그림으로 표현한 회화 작품도 전시한다. 김 작가는 김화순 작가와 향후 2인전도 계획하고 있다. 김 작가는 "오월단체 관계자들이 이번 사진전 작품을 보고 현재 훼손된 도청 모습에 대해 화를 내고 간다"며 "부디 복원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호남대 사회복지석사를 졸업한 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사연구, 5·18기념재단 5월 감사단 등에 참여했다. 5·18에 대한 책도 출간할 계획이다. 문의 070-4135-082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육남매의 특별한 팔손 선물

오운자·서시환 모자전...18일까지 양림미술관

전업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아들이 평생 뒷바라지해준 어머니의 팔손을 기념해 함께 전시를 연다. 양림미술관에서 서시환·오운자 모자(母子)전 '옛적 곧 선한 길'이 18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어머니 오운자 작가를 위해 아들 서시환 작가를 비롯한 육남매가 마련한 특별한 선물이다. 서 작가의 서양화 작품 25점과 오 작가의 서예, 문인화 25점 등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광주 출신 서 작가는 서울 추계예술대학교에 진학하며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어머니를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17년 만에 광주에서 갖는 전시다. 오운자씨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작가로 데뷔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자녀들의 미술 수업을 도맡아서 도와주곤 했다. 늦은 나이에 꿈을 이루기 위해 서예와 문인화를 공부한다. 2006년 5·18 민주화운동 전국위원회 특선, 2011년 대한민국 미술 대상전 특선, 2016년 한국 예술문화협회

공모전 대상 등 다수 상을 수상했다. 서 작가는 "팔손을 맞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던 중 동생들이 전시를 열어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했다"며 "꿈을 위해 도전하는 어머니의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전시장에서는 오 작가가 그동안 자연을 화폭으로 옮긴 문인화를 비롯해 시화 '정풍고절' 등이 서 작가의 서양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오 작가는 양림미술관 주최로 작업한 '양림', 옛 것의 가치를 말하는 '꼭지에 대하여' 등을 전시한다. 또 작품 '어머니 초상'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 의미를 더한다. 서 작가는 "힘든 화가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반대도 아닌 지원을 해주셨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작가와 작가로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작가는 "손주, 친구들에게 작가로서 자랑스럽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밝혔다. 문의 062-675-700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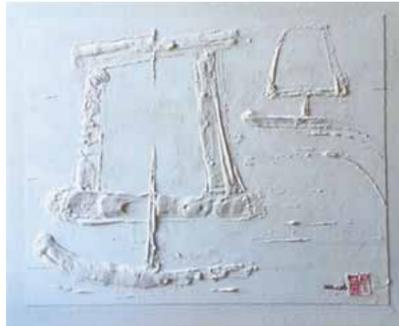


오운자 작 '청솔의 고향'

무등그래픽서화오늘회 회원전 18일까지 목포오거리문화센터

올해로 창립 41주년을 맞은 무등그래픽서화오늘회가 18일까지 목포오거리문화센터에서 20번째 회원전 '목포'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지영 회장을 비롯한 강병순, 강순애, 김병지, 김용률, 김태연, 노영현, 박근수, 박두식, 박순덕, 범진석, 서원길, 이경현, 장복자, 정기문, 정기석, 정원석 등 17명이 참여한다. 전시에서는 그래픽, 서화, 한국화, 서양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다. 김 회장은 성경과 디자인이 만난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참 사랑'은 사랑에 관한 성경 구절과 초록·분홍 잉어

두마리가 하트 모양으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어우러지는 시각적 연출을 보여준다. 서원길 회원은 나뭇잎을 글자 '목포' 형상으로 담은 '목포의 눈물'과 수목 작품 '인생'을 출품하며 사색의 시간을 제공한다. 김 회장은 "스무번째 회원전이지만 항상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열었다"며 "따뜻 열정으로 채운 그래픽의 아름다움을 만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등그래픽서화오늘회는 지난 1976년 무등그래픽디자인회로 출발했으며 2015년 이름을 바꿔 활동 중이다. 문의 061-245-883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원길 작 '목포의 눈물'

광주시립미술관 내일 최태만 교수 현대미술강좌

광주시립미술관이 16일(오후 3시) 본관 세미나실 현대미술강좌 두 번째 강사로 최태만(사진) 국민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강의를 연다. 이번 강좌는 '근대미술의 태동과 일제강점기'를 주제로 우리나라 근대미술에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살펴본다.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부터 장승업·조석진·안중신 작품, 채용신의 서양화 기법 수용에 관해 들려준다. 또 1920년대와 1930년대 환경결정론을 통해 당시 고유성·윤해운·박종홍 등이 보여준 근대



미술을 강의한다. 서울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최 교수는 1984년 '예술계' 신인 평론상에 당선되며 평론활동을 시작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등을 역임했다. 문의 062-613-71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